

신앙 상식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성가정 聖家庭 Sancta Familia. Holy Family

아기예수, 성모 마리아, 성 요셉의 나자렛에서의 가정을 가리킨다. 성가정은 복음서에 잘 묘사되어 있으나 17세기부터 대중적인 신심대상으로 발전되었고 이 때부터 '성가정'이란 명칭 아래 여러 수도회들이 창립되었다. 1921년 성가정 축일이 제정되어 예수 공현대축일 후 첫 일요일에 지켜지다가 1969년 이래로 성탄 후 첫 일요일에 지켜진다. 주일이 없으면 12월 30일에 이 축일을 지낸다. 성가정은 중세 말기에 회화(繪畵) 등 예술 작품의 주제로 널리 사용되어 일반대중들의 경건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르네상스시기에는 특히 제단화(祭壇畵)의 주제로 사용되었다. 회화의 주제로서의 성가정은 요셉대신 성모 마리아의 모친 성녀 안나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는 성모의 무염시태 교리를 나타내 주며 이에 비해 성 요셉이 포함된 성가정은 예수 강생의 신비를 잘 표현해 준다.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성가정에 봉헌하며 가정의 성화(聖化)를 위해 특별히 기도한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은 신자들이 나자렛의 성가정을 특별히 기억하고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17세기 이후 성가정에 대한 공경과 신심 운동이 발전하고 여러 수도 신심 단체가 조직되자, 교회는 1921년 주님 공현 대축일 다음 첫 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제정하였고, 1969년에 전례력을 개정하면서 성탄 팔일축제 내 주일로 옮겼다. 우리는 삶의 보금자리이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기본 요소인 가정을 거룩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히브리인들에게 열두 살이 된다는 것은 성년이 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가족에게서 독립하고, 하느님께도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찬다. 부모에게는 그 아들이 아직 어린애 같기만 하기 때문이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예수님께 대해 마찬가지로 마음이셨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아다니시느라고 애가 타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분의 수난 때에 다시 한번 같은 고통을 겪으셔야 할 것이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하느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으로 돌아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큰 사건 없이 평범하게 사셨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함께 사시면서 자라고 배우시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준비하신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요셉의 보호 아래 예수, 마리아와 함께 한 가정을 성가정의 원형이며 모범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오묘한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아들은 그 가정에서 긴 세월의 숨은 생활을 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들도 없는 이 가정 생활은 가난과 박해와 망명의 시련을 오히려 하느님께 영광으로 돌렸고, 매일 매일의 의무에 충실하고, 삶의 걱정과 시련을 견디어 내며, 타인의 요청에 개방적이고 관대 하였다. 무엇보다도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은 하느님 말씀을 늘 새로이 듣고, 깊이 이해하고, 따르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아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 교황님께서서는 현대 가정이 놓여있는 역사적 상황은 '빛과 어둠의 교차점으로 나타 난다'고 지적하셨고, 이것은 '신앙에 뿌리박은 사랑을 위한 교육'만이 어둠의 가정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하셨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2023년  
12월 31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Holy Family - COELLO, Claudio  
Oil on canvas, 248 x 169 cm. Museum of Fine Arts, Budapest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집회서 3,2-6.12-14  
#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1)



후렴: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 콜로새서 3,12-21  
# 복음 환호송 콜로 3,15.16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루카 2,22-40  
# 성가번호 입당 113 봉헌 98, 220 성체 100, 152 파견 114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오경선(원선시오) - 가족, 박 마리아 가족, 반석회, 박재영(요아킴)가족, 박화성(헬레나), 변태용(요셉), 이대우(베드로) 부부, 성순영(라파엘라), 양영길(그레고리오)
    - 가족
    - 가족
    - 가족
    - 가족
    - 가족
    - 이순재(마리아) 가족
    - 박화성(헬레나)
    - 김 스텔라
    - 안 마리아
    - 양영길(그레고리오)
    - 백상현(요셉) 가족
    - 최현지(안토니아) 가족
  - 선점환(마리아)
  - 이금주(베드로)
  - 김진철(요한)
  - 김명자(헬레나)
  - 김상기(요셉)
  - 이동현(요셉)
  - 온재경, 온판덕, 온흥기(요셉)
  - 박병희
  - 안상호(안드레아)
  - 양순조, 조고만
  - 백운택(어거스틴) 신부님
  - 최용호

-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채희백(바오로), 채미영(테레사), 노스브런스워 구역, 박락준(베드로)
    - 채희백(바오로), 채미영(테레사), 노스브런스워 구역, 박락준(베드로)
    - 민규란(엘리자벳)
    - 노스브런스워 구역
    - 가족, 백상현(요셉) 가족, 성순영(라파엘라)
    - 박재영(요아킴) 가족, 성순영(라파엘라)
    - 박재영(요아킴) 가족, 양영길(그레고리오)
    - 안 마리아, 성순영(라파엘라)
    - 양영길(그레고리오)
    - 육 글라라 가정, 성순영(라파엘라)
    - 육 글라라 가정
    - 육 글라라 가정
    - 육 글라라 가정
    - 이용문(안드레아)
    - 김세현(스텔라), 제니퍼
    - 노스브런스워 구역
    - 이호용(프란치스코), 최정원(레지나) - 박락준(베드로), 문마린(마리나) 가족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가정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 염은미(클라라)

- 오애희(유리안나)
- 오현주(요한), 오욱자(테레사)
- 김삼식(베드로)
- 양석훈(프란치스코), 홍제니(젬마)
- 정명숙(테레사)
- 길정숙(루시아)
- 이옥주(테레사), 이옥경(뽀리나), 이옥란(헬레나)

- 정 안젤라 가정
- 정 토마스 가정
- 바다의 별 Pr. 단원들
- 김민주(이스베리가)
- 정수지(아네스)
- 김한천(대건안드레아)
- 최현지(안토니아)
- 노스브런스워 구역원 가정
- 이호용(프란치스코), 최정원(레지나)

- 박락준(베드로), 이서형(요안나) - 문마린(마리나) 가족
- 임마르코, 스텔라 및 자녀들의 가정 - 임 마르코
- 백영숙(헬렌) - 허정(아나스타시아)
- 비비안 De Rigmis 가정 - 민규란(엘리자벳)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12/24 주일 헌금 ..... \$773
  - 12/24 & 12/25 성탄 헌금(성탄 감사헌금, 구유예물 포함)...\$6,186
    - 손종철\$500 김영필\$160 윤안젤라\$100 채희백\$200
    - 최완준\$100 이종실\$200 황태진\$100 익명\$300
    - 박재영\$100 김진\$50 최세레나\$100 이호용\$100
    - 서영원\$150 유병기\$160 이대우\$100 최영옥\$100
    - 박화성\$100 최영찬\$100 광신규\$100 Unsik Tores\$150
  - 교무금.....\$900
    - 엽기선(12) 추승호(11-12) 김안나(10-12)
    - 이광호(1-2)
  - 감사헌금.....최 골롬바\$100

- 2차 헌금**
- 1월 7일: Together in Chrty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월 1일 (월) 오전 9시, 경당
  - 올 해는 의무 대축일이 아닙니다

- 2024년 1월 주일 미사 일정 안내**
- 1월 7일(주일) 오후 3시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 1월 14일(주일) 오전 10시 손대혁 루치오 신부님 (한영 통합)
  - 1월 21일(주일) 오전 10시 손대혁 루치오 신부님 (한영 통합)
  - 1월 28일(주일) 오후 3시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 친교 봉사 일정**
- 1/21 올드브릿지 • 2/18 이스트브런스워 • 3/17 피스브릿지

- 12월 빵과 포도주 봉헌 봉사자**
- 12/31 이호용, 최정원

- 1월 빵과 포도주 봉헌 봉사자**
- 1/7 전광수, 전옥주 • 1/14서경호, 광금자
  - 1/21 심운조, 박화성 • 1/28 전옥주, 박화성

- 2024년 성당 달력 배부**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2024년 달력을 배부하오니 교우분들께서는 한 가정 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구역에 소속되지 않았으신 분들은 사무장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주소록 작성을 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Rosary Altar Society 모임**
- 일시 및 장소: 1월 7일(주일) 오전 10시 ~ 11시 친교실
  - 미팅 시간동안 친교실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 1월 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1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가톨릭 교회 평신도
  - 접수마감: 2024년 2월 16일
  - 문의: 사무실

- 바오로말 성경학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 우편과 동영상 강의 성경 공부
  - 접수마감: 2024년 1월 31일
  - 문의 : 사무실

- 사무장 모집 공고 (문의 : 성당 사무실)**
- 응모자격: (1) 본당 신자, (2)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 (3) 생활영어 가능하신 분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태오) 광 율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송희수(글라라)

**제1독서: 집회서 3,2-6.12-14**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 콜로새서 3,12-21**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을에서 우리나라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디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2,22-40**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라 같은 때에 나아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